Digital & IT

AM OLED 시대

휴대전화에서 디카까지 무한 장착

전력 절감·빠른 속도·밝은 곳에서도 선명

TV 곧 상용화 … 업계 앞다퉈 제품 출시

▲AM 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LCD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소비전력도 절반이상 줄고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다.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이 왜곡되지 않아 동영상을 보는데 최적화된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가 IT 기기들을 점령했다. TV 등 대형제품에는 기술·경제적 문제로 출시가 다소 늦지만, 휴대전화·MP3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 등 IT기기들에서 이미 AM OLED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바야흐로 AM OLED 시대다.

◇총성없는 AM OLED 전쟁터 'MP3플레이어'= 대형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면이 작은 MP3 플레이어는 지난해부터 AM OLED를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한 업체의 독주가 아닌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M OLED를 도입하면서 총성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1천600만 색상에 달하는 AM OLED를 탑재한 코원의 'S9'은 세련미 넘치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동영상 재생 때 일일이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타 제품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파일형식을 바로 지원하므로 편리하기도 하다. 최저가 20만원(4GB 기준)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스핀(SPINN)'은 뛰어난 색상과 시야각을 보여준다.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스핀 휠'과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조작법도 독특하다. 최저가 15만8000원(4GB 기준).

9월 중 삼성전자가 선보일 MP3플레이어 '옙 M1'은 '보는 MP3P'를 표방한 야심작이다. 최고급형 풀터치폰과 견주어봐도, 화면 크기로만 따졌을 때 스마트폰인 'T옴니아'와 동일하며, 지난 6월 출시된 '햅틱 아몰레드'(3.5인치) 다음가는 화질이 구현됐다.

◇독주하는 삼성의 AM OLED '휴대전화'= 휴대전화 업계의 AM OLED 탑재는 삼성이 독주체제를 갖추고 있다. '햅틱아몰레드' '제트' '옴니아2' 등은 물론 2세대용 휴대폰에 AM OLED를 채용한 'SCH-B890'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폰'에 3인치형 AM OLED를 장착한다.

LG전자는 시간관리가 가능한 프랭클린 플래너 기능을 탑재한 AM OLED폰 'SU100'을 내놨었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았다.

◇디카에도 AM OLED…LG는 TV제품 곧 상용= 디지털카메라에도 AM OLED 화면을 채택해 강한 햇빛 아래서도 쉽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더한 삼성 'WB1000'은 AM OLED 화면을 도입했으며 1천200만 화소와 5배 광학 줌의 슈나이더 렌즈 등 첨단 기능도 내장돼 있다. 최저가 41만원.

출시가 예정돼 있는 니콘 '쿨픽스 S70'은 터치 패널에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촬영, 재생, 편집 등 조작을 할 수 있다.

LG전자는 오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최대가전전시회 'IFA 2009'에서 올해 말 판매 예정인 15인치 크기의 AMOLED TV 제품을 선보인다. AMOLED TV는 삼원색의 화소가 자체 빛을 내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LCD TV나 LED TV에 들어 있는 별도 광원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슬림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색 표현력과 시야각도 기존 LCD TV보다 우수하다. 그러면서도 소비전력이 낮고 발열도 거의 없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IT 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정부, IT융합·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전략 추진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오는 2013년까지 189조3천억원을 투자해 IT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IT 5대 핵심전략을 추진, 제조·소프트웨어·서비스 등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뤄 오는 2013년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IT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되어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IT융합·소프트웨어·주력IT·방송통신·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 14조1천억원, 민간 175조2천억원 등 총 189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규모는 160여개 IT기업의 실제 투자계획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취합한 수치다. 정부재원은 중기재정에 반영된 12조6천억원 투자계획에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5대 핵심전략과 관련 우선, 조선·에너지·자동차·의료·섬유·기계·항공·건설·국방·로봇 등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산업융합 분야에 IT센터 설치를 확대(2009년 3개→2012년 10개)하고, 사회간접자본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연말 수립하기로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연합뉴스

홈쇼핑 쌀 판매 새 창구되나

5개업체 올 판매량 1만t

홈쇼핑 5개 업체의 쌀 판매량이 올해 1만t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GS홈쇼핑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자사의 쌀 판매량과 CJ오쇼핑, 현대.롯데.농수산홈쇼핑 등 4개사의 쌀 판매량을 합산한 결과 총 36만여 포대(7천t)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 판매량인 3천400여t을 배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연말까지 52만3천 포대(1포대 =20kg) 판매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홈쇼핑업계 사상 최초로 1만t 돌파가 예상된다고 GS홈쇼핑은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올해 8월까지 GS홈쇼핑이 2천900t, CJ오쇼핑 1천800t, 현대홈쇼핑 1천t, 롯데홈쇼핑 500t, 농수산홈쇼핑 1천100t을 기록했다.

홈쇼핑업계는 대형마트의 쌀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했고, 넘치는 쌀 재고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에 TV홈쇼핑이 쌀 유통의 대안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새 얼 굴

"지역에서도 가계대출 한다"

정 기 춘 산업은행 광주본부장

"현재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거쳐 국내의 선도적인 투자은행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기춘(52) 산업은행 광주본부장은 "산은이 조만간 가계금융 시장에도 진출하는 만큼 지역에도 정책금융외에 개별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업무 등 가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고향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며 "기업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 출신인 정 본부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후 산업은행에 입사해 주로 국제업무와 여신업무를 담당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